

50년 뒤 한국, 인구 3800만명...세계 꼴찌

통계청 '세계와 한국 인구 현황 및 전망' 세계 합계출산율 2.32명...한국은 0.81명

약 50여년 뒤인 2070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돌파할 때, 한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3800만 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홍콩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2070년 46.4%까지 급증해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 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32명으로 1970년 4.83명에 비해 2.51명(51.9%) 감소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더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970년 4.53명보다 3.72명(82.2%) 줄었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1970년 89위였으나, 지난해 홍콩(0.75명)을 제외하고 236개 국가 중 두 번째였다.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세계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9.8%에서 2070년 20.1%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인구 중에 경제 중추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는 올해 64.9%에서 2070년 61.4%로 감소하고, 한국은 올해 71.0%에서 2070년 46.1%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고령인구는 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면서 세계의 총부양비는 올해 54.0명에서 2070년 62.9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올해 40.8명에서 2070년 116.8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상위 2위 수준이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과 고령인구를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세계의 기대수명은 72.0세이고, 한국의 기대수명은 83.5세다.

◆세계 인구 2070년 '100억 명' 돌파...한국은 3800만 명

세계 인구는 올해 79억7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후 계속 증가해 2070년에는 10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어 2070년에는 38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2020년 인구 정점을 찍은 뒤 2070년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14억3000만 명이지만, 2070년에는 인도가 16억9000만 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 국가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 올해 29위에서 2070년 59위가 된다.

세계의 인구성장률은 올해 0.83%에서 2070년 0.18%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올해 -0.23%에서 2070년 -1.24%로 감소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통일하면 2070년 인구 6100만 명...세계 39위

북한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북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81명으로 1970년 3.85명보다 2.04명(53.0%) 줄었다. 북한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1.7%에서 2070년에는 26.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구성장률은 올해 0.37%에서 2070년에는 -0.46%에 그쳐 감소세로 전환된다. 북한 인구는 올해 2600만 명에서 2033년 정점을 찍은 뒤, 2070년에는 24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남북이 통일하면 총인구는 올해 기준 7800만 명으로 세계 20위 수준이다. 2070년에는 통일 인구가 6100만 명으로 감소해 세계 39위 수준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통일 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김재환기자



순천경찰, 안심치안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합동순찰

순천경찰서(서장 김종호)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석 명절 종합 치안 대책을 2주간(8월 29일 ~ 9월 12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소방, 제4회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우수상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최근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제4회 대한민국 119구급 활동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진도소방, 정박 중인 선박 화재 현지적응 소방훈련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최근 임회면 서항항에서 선박 화재진압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횡간도 비상구급함' 설치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소안면 횡간도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일반 상비약 및 외상처치 물품이 포함된 '비상구급함'을 설치하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여수소방, 하반기 직장교육 훈련 실시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8월 30일, 31일 이틀에 걸쳐 하반기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대인예술야시장 안전체험교육·홍보 캠페인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3일 대인예술야시장 개장과 함께 찾아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안전체험교육 및 소방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슬비기자

'주행 차량 운전자 폭행' 5년 새 광주·전남 2배 급증...“엄벌 필요”

“대중교통 기사 폭행은 다수 안전 위협...처벌 강화·예방책 강구”

최근 5년 사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주행 차량 운전자 대상 폭행이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주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 폭행 사건이 442건 발생했다.

관련 사건으로 검거된 463명 중 6명은 구속됐다.

연도 별로는 ▲2017년 67건(68명 검거) ▲2018년 84건(84명) ▲2019년 68건(75명) ▲2020년 88건(93명) ▲2021년 135건(143명) 등으로 집계됐다.

계됐다. 발생 건수와 검거자 모두 지난 5년 사이 2배 가량 늘었다.

전남의 경우, 2017년 54건(56명 검거), 2018년 60건(60명), 2019년 62건(66명), 2020년 80건(90명), 2021년 115건(115명) 등 5년간 총 371건이 발생했다. 전남 역시 5년 새 운전자 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어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선 운전자 폭행 사건 검거자 387명 중 4명이 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기준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15건)이었다.

이러 경기 남부 677건, 부산 363건, 인천 286건, 경남이 248건 순이었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이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동취재본부



'전통놀이 체험해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어린이들이 제기차기를 하고 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초강력 태풍 힌남노 내습'...바다에서 보드 타던 30대 2명 적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남해서부 전 해상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기구를 타던 30대 레저객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여수시 오전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A(31)씨와 B(31)씨를 수상레저안전법(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곳을 지나던 한 관광객은 위험해 보인다고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보내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이들은 태풍 복상에 따른 기상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